

## 42 방직공장 작업자에서 발생한 복막의 악성중피종

성별	여성	나이	73세	직종	방직생산직	직업관련성	낮음
----	----	----	-----	----	-------	-------	----

### 1 개 요

근로자 ○○○은 1983년 7월(44세)부터 전북 정읍시에 위치한 방직공장에 입사하여 약 12년 정도 근무하였다. 퇴직 후에는 집안일을 하면서 농사일을 하였다. 그러던 중 2012년 초부터 변비 있어 약물치료 받다가 2012년 6월 증상 심해져 병원을 방문하였고 복막의 악성중피종으로 진단받았다.

### 2 작업환경

근로자는 1983년부터 약 12년간 정읍시에 위치한 방직공장에서 근무하였는데 그 기간 동안 3~4개의 사업장을 거쳤으며 조사 당시 모두 폐업상태였다. 근로자는 실에서 천을 만드는 제직기계를 다루는 업무를 하였다. 실타래를 다른 근로자가 기계에 연결하면 제직기계가 자동으로 천을 만들었으며 근로자는 기계가 계속 돌아가도록 실이 다 되면 북에 실을 연결하여 주고 기계에서 사고가 발생하여 실이 끊어지면 다시 실을 연결해 주는 작업을 하였다. 실의 종류는 면, 나일론, 삼베였다고 하였다. 제직기계에서 먼지가 많이 날렸으며 환기 시설이 전혀 없어 제직기 밑에 먼지가 많이 쌓여 하루 2번 직접 청소하였다고 하였다.

### 3 해부학적 분류

- 기타암

### 4 유해인자

- 화학적 요인 (분진)

### 5 의학적 소견

근로자는 2003년(64세)에 유방암 진단받고 좌측유방 절제술과 항암화학요법치료를 받

았다. 2012년 1월(73세)부터 변비증상이 심해져 △ 병원을 방문하였으며 초음파 검사결과 복막의 암종증(peritoneal carcinomatosis) 의심되어 조직검사를 위해 진단적 개복술을 시행받았다. 전자궁절제술 및 양측 자궁 부속기 절제술, 골반강 내 림프절 절제술, 복부 대동맥 주위 림프절 절제술, 대망 절제술, 충수절제술, 대장과 직장에 종괴 절제술을 시행받았으며 조직검사 결과 복막의 악성 중피종으로 확진되어 항암치료를 받았다.

## 6 고찰 및 결론

근로자는 44세인 1983년에 전북 정읍시 소재의 방직공장에 입사하여 약 12년간 방직 공장에서 제직기로 천을 만드는 업무를 수행하였다.

근로자가 근무하였던 공장은 슬레이트 지붕으로 만들어진 공장이었는데 이 당시에는 슬레이트에 석면이 함유될 수 있으나 슬레이트 수리나 보수 작업에 직접 관여한 적은 없었다. 그러므로 직업적으로 석면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적어 업무관련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한다. 끝.